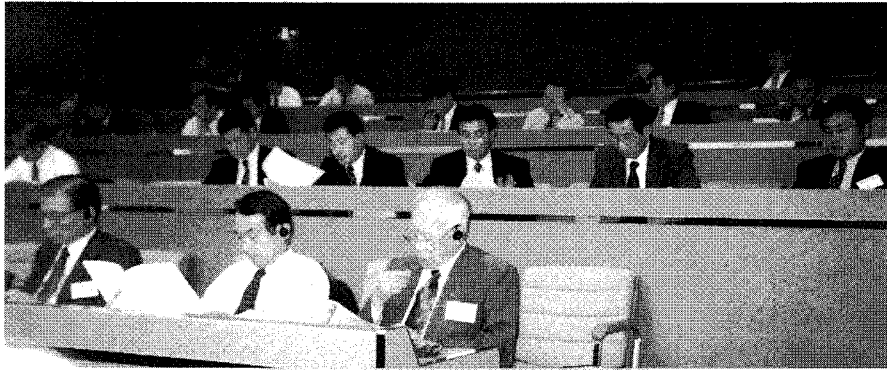




제16회 韓·日·臺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킬 공동노력 절실

주제달라도 목표의식 같아, 본회의 2년마다 개최키로

한 국·일본·대만의 농약업계 인사들이 모여 3국의 농업 및 농약산업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각종 관련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농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16회 한국·일본·대만 3국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가 일본농약공업협회 주최로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일본 동경 암연구진흥재단 국제연구교류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참

석한 각국 대표들은 내외적 주변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농약업계가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만큼 3국 간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朴哲根 회장(영일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하여 2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일본은 40명, 대만에서는 13명의 대표와 많은 옵저버들이 참석하여 상황을 이루었다.

이자리에서 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농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더욱이 아시아 지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식량해결이 시급한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아직도 농약에 관해서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용어가 과학적 근거를 앞서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부 농업인의 잘못된 사용에



3국 회장단 모습. 좌로부터 KACIA 박哲根 회장, JCPA 望月信彦회장, TAIA 楊文彬회장.

서 비롯된 잔류량의 허용기준 초과 검출이 마치 농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양 오도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또 “지난 UR합의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재협상하게 되며 농업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농업보조금 감축’이란 점을 감안할 때 협상결과가 농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 절약형 농업을 이룩하는데 필수자재인 우수농약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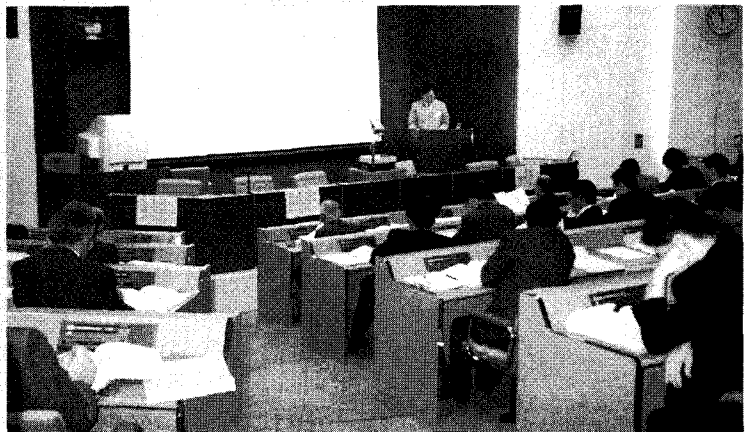
한편 望月信彦 일본농약공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의 성장 센터라고 불리던 아시아 경제는 작년 여름이후 통화·금융위기에 휩싸여 그 파장이 세계 경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농약산업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정세속에서 농산물자유화 추진, 시장개방을 위한 제도 완

화 등 WTO의 차기 교섭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3국의 농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아 최근 식품소비가 다양화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대되어 식품자급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차기교섭과 관련하여 농업의 재생·재구축이 공통된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楊文彬 대만농약공업동업공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 불안정 현상이 심화되어 식량부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본

식량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동목표가 되었다”면서 특히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내년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고 전망하고 “이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3국의 농약공업협회 공동노력으로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농약산업의 신기원을 재창조 하자”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단의 자기소개에 이어 3국의 농업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대만 일본 한국 순으로 농업정세보고(상보 참조)가 있었다.

한편 한국농약공업협회 주최로 열리는 제17회 3국자매회의 부터는 개최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매년 개최해오던 본회의는 격년제로 3국이 순회 개최하게 되며 분과위원회는 주최국의 사정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제로 열리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가진 특별강연에서는 住友化學工業(株)의 宮本 純之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한국측 농업정세보고를 하고 있는 농약공업협회 崔運鸞 상무이사.



제16회

韓·日·臺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

고문이 “농약규제에 대한 국제적 경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본회의에 앞서 열린 4일 분과위원회에서는 각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한 발표와 폭넓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10명, 일본에서 11명, 대만에서 9명 등 모두 30명의 위원 및 옵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측에서는 ‘농약수급체계 및 관리현황’, ‘Label표기 및 관리현황’, ‘농약공병수거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농약산업의 전망과 우선과제’에 대해, 대만측에서는 부재나 제형분류 및 위탁 생산·가공 등에 대한 ‘현 규정’에 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한국측 발표주제에 대한 일본과 대만의 현황을 보면 농약유통체계 및 현황에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판과 농협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농협의 점유율이 50%이며 대만은 시판상이 9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라벨 표기 및 관리현황으로는 일본과 대만 모두 동일주성분

(동일함량)에 동일라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색구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약공병 수거는 일본은 일반 및 산업 폐기물로 구분하여 97년 12월부터 야외소각을 금지하고 있고 회수업자에게 위탁, 수거하고 있으며 대만은 회수비용 전액을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합성수지병이 53%, 지대기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약용기중 유리병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73%였던 식량자급률이 96년에는 42%가 되었다.

농작물 작황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올해 9월 15일 현재의 수도작 작황은 전국 평균 작황지수가 98로 조금 불량한 편이다.

전국적인 작황은 초봄부터 7월까지 기온이 대체적으로 높았고 생육도 순조로왔지만 8월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상륙으로 피해를 입어 5년만에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며 과수작황도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 감귤은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병해충 발생상황

봄에 고온과 비가 많아서 잎도열병의 발생이 평년작보다 조금 많았다. 그러나 초기방제가 순조로워 목도열병 발생은 적었다.

벼멸구 비래는 평년보다 약간 많았고 번식에 알맞은 조건이 계속되었다. 과수는 감귤류의 궤양병 및 배의 흑반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농약 출하상황

JPCA통계에 의하면 1998년

농업정세보고

JCPA

일본농약공업회

농업 상황

농업경영 및 농정 동향

1997년도 농업소득은 벼, 채소, 과수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3.3% 감소하였으며 경지면적과 취업인구 또한 전년보다 줄었다.

한편 수입농산물은 증가 추세를 보여 1965년에 공급량 기준

약년도('97. 10 ~ '98. 8)는 8월
까지 출하량 29만2천톤(전년대
비 89.8%), 출하금액 3천3백55
억엔(전년대비 93.9%) 으로 나
타났다(표1).

용도별 출하량 역시 모두 감
소했고 금액은 혼합제만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작물별 출하량 및 금액

	출하량		금액	
	8월말	전년대비	8월말	전년대비
수 도	146천톤	86.2%	1,235억엔	89.6%
과 수	31	90.4	601	94.9
채소·전작	87	95.5	1,015	97.9
기 타	29	93.5	504	96.0
합 계	292	89.8	3,355	93.9

표2. 용도별 출하량 및 금액

	출하량		금액	
	8월말	전년대비	8월말	전년대비
살 총 체	102천톤	90.3%	1,020억엔	93.7%
살 균 체	76	90.2	925	94.9
혼 합 체	38	90.6	265	102.4
제 초 체	66	87.9	1,043	91.5
식조제 등	10	92.5	102	92.3
합 계	292	89.8	3,355	93.9

행정 동향 및 대응

신농업 기본법 검토

정부는 총리 자문기관으로
「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조
사회」를 발족시켜 「농업기본법
(1961년 제정)」을 대신할 새로

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다음 국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특허 끝난 농약 등록제도

농림수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특허 끝난 농약의
등록제도 검토회」를 1997년 6
월에 구성하여 ① 안전성 확보
를 전제로 한 동등성 확인 등의
기술적 과제 ② 데이터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한 제도
적 과제 ③ 기타사항에 관해 검
토하였다.

내분비 교란물질 문제

환경청은 올해 5월 「외인성내
분비 교란 화학물질 문제의 환
경청 대응 방침」(환경호르몬 전
략 SPEED '98)을 발표하고
「내분비 교란작용이 의심되는
화학물질」로 농약을 포함 67개
물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매스컴의
과장된 보도는 많은 국민에게
불안을 갖게하고 있다. 일본협
회에서는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한 견해(5. 21자료)」를 발표
하고 「내분비 환경물질 문제 특
별위원회」를 설치, 환경청에
① 목록에서 현재 등록된 농약
삭제 ② 삭제불가의 경우 근거

제시 ③ 화학물질 작용의 강약
에 따른 재분류를 건의했다
(7. 16). 또 환경청과 농림수산
성을 통해 관계 중앙청과 지방
공공단체에 농약행정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
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약과 내분비 교란화학물질
문제」 책자를 제작, 도도부현
등 관계 지도기관에 배포했다.

농약 용기처리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빈농약
용기의 소각이 금지되었기 때
문에 현행 농림수산성의 안전
처리기준이 재검토 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사용한 농약용기
의 세척과 그 처분방법」 지침의
개정관련,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새로운 지침을 작성하
고 있다.

「잔류 농약기준」 추가 설정

작년에 23개 농약이 설정되어
161개 농약 130작물이 되었다.
후생성은 2000년까지 200개 농
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등록 추진중인 것은 125개 농
약이며 18개 농약이 추가 설정
될 예정이다.

수질 조사결과

환경청은 1990년부터 골프장



제16회

韓·日·臺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

배수구등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7년도는 약 2,000개 골프장에 대해 35농약을 대상으로 약 12만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4개 농약이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JCPA 활동상황

홍보활동

지난해에 이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광고를 게재했고, 보도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를 발행했으며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년 12월에 개설하여 정보제공을 하였다. 이용상황을 보면 월평균 600건으로 9월 30일 현재 5,961건을 기록하고 있다.

TAIA

대만농약공업협회

농작물 생산현황

1997년 대만의 농산물 생산액은 1천7백36억NT\$로서 전년에 비해 9.7% 감소했다. 이

중 과일이 34.43%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채소 22.88%, 쌀 21.74%, 특용작물 10.94%, 보통작물 4.81%순이다.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73% 늘어났으며 쌀 총생산량은 2백4만톤으로 전년보다 5.75% 증가했다. 잡곡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농업생산구조 조정과 부분적으로 다른 작물로 바꾸거나 휴경지로 남겨둔데 따라 많이 감소했다. 특용작물은 각각 증가와 감소를 보였으며 각종 과일은 생산이 늘어났다. 채소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폭우의 영향으로 생산은 감소하였다. 화훼 재배면적은 묘포, 절화, 분화, 구근 및 종자 등 5부류로 나누는데 전년대비 4.4%가 증가했다.

병해충 방제현황

수도용 병해충 발생을 98차례 예측발표하고 농민들에게 적기에 방제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전면적인 종자소독을 실시, 해충발생률을 7% 감소시켰으며 날곤충류, 이삭도열병, 물바구미, 흰잎마름병 방제율이 평

균 82%에 이르렀다.

잡곡은 성페로몬을 응용한 밤나방과해충, 고구마개미코끼리를 방제했으며 농약사용량과 횃수를 줄이기 위해 자루, 성페로몬 등의 비농약방제법을 사용했다. 방제력을 만들어 영업사원이 대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잔류표본 검사는 밭에서 직접 뽑은 채소 43,754건, 시장에 출하된 채소 21,834건의 표본검사를 했다. 과실파리의 슛컷을 유인하여 없애기 위해 유인판을 땅위에 걸어놓거나 던져놓고 공중에 유인판을 달아 놓는 등의 공동 방제작업을 했다. 자루를 사용해서 풀 잡자리를 방제하고 연무를 이용하여 토마토, 모과, 딸기 등의 병해충을 방제했다.

농업 재해현황

1997년 대만의 농작물 재해손실액은 36억1천6백만NT\$이다. 이 중 호우로 인한 손실이 54.6%로 가장 크며 작물별로는 쌀, 수박, 모과, 채소, 배, 바나나, 반석류, 대추 등이다. 태풍으로 인한 손실은 36.6%이며 작

물별로는 여지, 채소, 축순, 쌀, 유자, 모과, 바나나 등이다.

농약 판매현황

1997년 대만의 전체 농약사용량은 4만2천9백62톤(성분량 9천3백63톤)으로 1996년보다 1.3% 감소했다. 판매금액은 53억5천7백만NT\$로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중 국산 제품 비율은 76%이며 수입제품은 24%이다.

용도별 판매량은 제초제가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살충제, 살균제 순이다. 판매금액은 살충제가 가장 많고 제초제, 살균제 순이다.

1998년 상반기 농약제품 판매량은 1만8천8백70톤(성분량 3천7백18톤)이며 전년 동기대비 1.44%가 줄었다. 판매금액은 20억 9천 6백 만 NT\$로 4.15% 성장했다. 이는 달러가 큰 폭으로 평가절상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1월~8월까지 천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36억2천1백만NT\$이나 하반기에는 수해로 인한 농업손실 등이 농약시장에 성장을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된다.

1997년 대만의 농약총수입액은 42억6천8백만NT\$였다. 이중 50%는 농약원제가, 30%는 완제품농약이, 20%는 합성원제가 각각 차지했다. 수입국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순이다. 수출총액은 13억1천7백만NT\$이며, 홍콩을 통한 무역이 1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태국, 일본, 에콰도르 순이다.

1998년 상반기 농약원제 수입량은 4천3백46톤이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3.6% 수준이다. 수입액은 3천3백78만 US\$이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86.3% 수준이다.

관련 행정법령 및 규칙

○ 1997년 11월독성물질관리법을 개정해 독성물질을 △환경중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암, 기형 혹은 기타 만성병을 유발시키는 것 △노출되면 곧 인체에 유해한 것 △환경오염 또는 인체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것 등 4가지로 분류한다.

○ 1997년 12월 경제부는 중국제품 수입을 개방했고 제품에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정제, 살선충제, 살서제 등 원제를 포함하고 있다.

○ 1998년 3월 환경에 대한 약의 관리법 시행세칙을 공고했다. 내용은 제조 혹은 수입허가증에 필요한 서류등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1998년 4월 「잔류농약안전허용량」을 늘리는 등 수정했다. 모두 287종 농약 106작물의 1,068종 잔류농약안전허용량이다.

○ 1998년 9월 Alachlor 등 28종 농약의 유효성분 시험방법을 수정 공고했다.

○ 행정원농업위원회는 1998년 8월 동식물방역, 검역 및 검사규칙 법규의 제정 및 지도, 동식물 방역, 검역기술의 연구, 발전 및 기술복구와 기타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동식물방역검역국을 신설하고 제4차 전국농업회의를 열었다.

○ 1997년 1~8월까지 신규 등록된 농약은 7종이며 적용확대는 21종, 안전제형으로의 변경은 7종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농약은 574종이고 식물보호방법이 확보된 것은 1,272종이다. **농약정보**